

# 고용노동부,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당부 -

고용노동부는 5월 8일(목) 10:00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진행했다.

\*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등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개사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을 직접 당부하고자 마련되었다.

## 〈 20대 건설사 '25년 중대재해 사례 〉

| 20대 건설사 | '25년 사고사례(5.6. 현재)                                         |
|---------|------------------------------------------------------------|
| E사      | (2.25.) 교량 붕괴, (3.10.) 갯품 추락, (3.25.) 달비계 부딪힘 등 3건 <6명 사망> |
| P사      | (1.16.) 갯품 추락, (4.11.) 터널 붕괴, (4.21.) 개구부 추락 등 3건 <3명 사망>  |
| H사      | (3.14.) 철거 건물 무너짐, (3.15.) 낙하물 맞음 등 2건 <2명 사망>             |
| G사      | (2.3.)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3.28.) 낙하물 맞음 등 2건 <2명 사망>             |
| K사      | (2.28.) 굴착기 부딪힘, (3.14.) 넘어지는 향타기에 깔림 등 2건 <2명 사망>         |
| C사      | (3.11.) 낙하물 맞음 등 1건 <1명 사망>                                |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도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배경에 예의주시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 ① 어려운 여건일수록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 우선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안전투자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등으로 경영에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안전 활동 역량을 서류 작업 등 사후적 수사 대응 목적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 내실화, 현장 순회점검 강화 등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 ② 전(全) 건설현장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강화

건설사 자체적인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위험 요인으로 발견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 안전보건전문기관의 기술지도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을 위해 올해 건설현장 감독 물량의 60% (3천개소)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재무건전성이 낮은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기존 3·4개월→2개월)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③ 각 건설사별 온열질환 예방대책 마련·실시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58명) 중 건설 현장에서 31건(53.4%)이 발생한 만큼 건설사별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작업 시에는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도 주요 건설사들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 (붙임 2 참조)들을 중소규모 건설사들에 적극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요

2. 온열질환 예방 우수사례

|       |                        |     |            |                                          |
|-------|------------------------|-----|------------|------------------------------------------|
| 담당 부서 | 산재예방감독정책관<br>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황효정 (044-202-8935)                       |
|       |                        | 담당자 | 사무관<br>주무관 | 김원호 (044-202-8936)<br>박승현 (044-202-8940) |
| 담당 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관<br>직업건강증진팀   | 책임자 | 과 장        | 신옥균 (044-202-8890)                       |
|       |                        | 담당자 | 사무관<br>주무관 | 박현건 (044-202-8891)<br>한진우 (044-202-8895) |



## 붙임 1

##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5. 5. 8.(목) 10:00~11:30
- (장소) 로얄호텔서울 3층(서울 중구 명동길 61)

###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직업건강증진팀장, 산재예방지원과장 등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건설안전실장, 건설계획부장 등
- (건설사)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SO(또는 안전임원)
  -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호반건설, 디엘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제일건설, 중흥토건,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24년 시공능력 순위 順)

### □ 주요 내용

-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및 건설산재예방 정책방향
- 주요 건설사 안전관리 사례발표
- 사망사고 감축 방안 토론

### □ 세부 일정

| 시 간               | 주요 내용                 | 비고          |
|-------------------|-----------------------|-------------|
| 10:00~10:05 ('5)  | ■ 인사말씀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 10:05~10:15 ('10) | ■ 최근 건설업 중대재해 현황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
| 10:15~10:45 ('30) | ■ 주요 건설사 안전관리 활동 사례발표 | 업체별 5~8분 내외 |
| 10:45~11:15 ('30) | ■ 자유 토론               | 참석자 전원      |
| 11:15~11:25 ('10) | ■ 주요정책 추진사항 및 당부사항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 11:25~11:30 ('5)  | ■ 마무리 말씀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 붙임 2

## 온열질환 예방 우수사례

### 삼성물산(주) : 휴식시간 부여

- 작업장소에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시간 골조작업팀 등 대상으로 휴식 및 작업중단하도록 공지, CCTV로 모니터링하여 미준수 현장은 본사에서 휴식부여 준수 경고메시지 발송



〈체감온도 측정〉



〈휴식시간 전파 - 방송, SNS〉



〈CCTV 모니터링〉

### 현대산업개발(주) : 그늘 설치

- 아파트 최상부 골조공사 시 작업장 온도를 낮추기 위해 그늘막을 설치 후 작업, 휴게시설 설치가 어렵고 이동작업이 많은 토목공사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이동형 휴게시설(고드름카) 설치·운영
- 형틀·철근·용접작업을 하는 온열질환 민감군은 33℃ 이상시 옥외작업 중지



〈최상층 차광막(그늘) 설치〉



〈최상층 어닝(그늘) 설치〉



〈고드름카 운영(토목현장)〉

### 제일건설(주) : 교육

-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시공 현장에 AI 통번역기를 보급하여 운영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